

“살만해야 꿈도 꾀다” 청년이 살맛 나는 전남 만든다

전남도, 2022 청년정책 본격 추진

전남도가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과 청년들의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해 올해 모두 3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정책을 청년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에 82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전남도 산하 23개 실과에서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청년의 유출을 예방하면서 외지 청년을 유입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년취·창업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 문화복지 등 지역 정착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산업 분야 및 현장중심 일자리·창업 지원= 14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을 비롯해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창업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 지역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로 정규직 일자리를 촉진하는 청년근속장려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청년뉴딜로 사업 등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6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 일자리 대책으로도 선정된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청년활동가 583명을 마을사업장에 배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역기업과 학생이 연계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후진학 140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930명, 지역·산업 맞춤형

3350억 투입 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 82개 사업 생활 안정·경쟁력·자생력 확보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

형 일자리 지원사업 660명 등 지역 인재 1700여 명 양성으로 청년일자리 인력수급 미스매치도 해소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익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6ha),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스마트온실(1500㎡) 설치비도 지원한다. 고학력·미취업 청년 120명을 지역아동청년인 꿈꾸는 전남 센터 학습교사로 채용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 지원 확대, 미래 핵심인재 육성=전남도는 전남에서 일하는 청년 500여 명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전·월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또 올해 새롭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2차녀 이상 다자녀가정 1670가구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 36개월간 주택 구입비용의 대출이자자를 주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있다.

전남도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 중이다. 매년 1000여명의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해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원,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의 융합형 공학인재 210명, 에너지 관련분야 석·박사 28명, 애니메이션, 웹툰 등 전문인력 194명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및 대학과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 복지·문화활동 지원 늘리고, 관련 정책 참여도 보장=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한 사회출발형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한다. 월 10만원씩 36개월간 매칭 지원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과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도 차원에서 최초로 200만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도 지원 대상을 2200부부에서 4400부부로 2배를 확대했다. 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청년을 위해 240억원을 투입해 전남청년 12만명에게 공연관람, 학원 수강 등 문화복지비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학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만 18세가 돼 보호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주거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청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아이디어 발굴해 정책으로 수립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



전남도가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법인, 단체 등 청년공동체 30개팀에게 청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사업에 참여중인 전남도내 청년들.

이다. 시군 청년센터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년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목포, 여수 등 15곳에 설치된 시군 청년센터 나머지 7곳의 시군에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또 오는 4월 ‘메타버스 전라남도 청년센터’를 개관해 청년과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청년정책 홍보 등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포털을 구축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법인, 단체 등 청년공동체 30개팀으로 확

대해 청년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 협력하는 지역특색에 맞는 ‘전남형 청년마을’ 1개소를 시범 조성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며 “청년의 삶을 더욱 촘촘히 챙겨 좋은 정책들로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전남이 되도록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명품 핫 천일염 4월에 만나요

지난해 26만4000t 생산, 전국 생산량의 94% 도, 시설 자동화 등 10개 사업 130억원 지원

태양과 바람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리는 천일염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광 신안에서 4월부터 2022년산 첫 생산에 들어간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은 따뜻한 햇볕과 함께 바람이 불어주는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전국 생산량(28만1000t)의 94% 이상인 26만4000t을 생산했다. 이에 따른 전남의 생산액은 1722억원으로 전국(1943억원)의 89%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이며 바람과 햇빛만으로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이다.

전남은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가 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전 세

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계랑드 천일염보다 미네랄이 두 배 이상 많이 들었다는 사실도 학계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 명품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1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천일염 생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동채취기, 전동다파기 등을 보급해 생산시설 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천일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을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생산 기반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전남산 명품 천일염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공건축물 설계 심사 광주시 온라인 생중계

광주시는 공공 건축물 설계 공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5일 광주 도시재생공동체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 광역동물보호센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축 설계 공모 심사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심사 중계는 작품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심사결과 발표 등 심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공개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건축, 디자인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종합건설본부는 기대했다.

본부는 앞으로 모든 공공 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경제자유구역청, 8곳과 투자 협약

AI기반 라이브커머스 등 535억 규모...220여 명 고용창출 효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5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브커머스와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미래 신산업 분야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은 라라스테이션, 월드코스텍, 호그린에이, 코리드에너지, 신광메디칼, 삼진에너지, 에코팩토리얼, 삼부철강이다.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개발, 디지털 의료 진단기기,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다.

투자협약이 이행되면 535억원 투자, 220여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거점으로 투자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기업들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인프라와 생태계를 활용해 시장 진화형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2022년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기업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 사업목적**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중심을 위한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사업공고 및 접수** 2022. 3 ~ 4월 중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별도공고 참조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 <http://gei.re.kr/>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job.jeonnam.go.kr/>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공고 기준일 2022년 신규인력 채용 및 예정 기업 대상
 - 1기업 1인 이상 채용 의무 협약서 작성 기업 (사업기간 적용,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 계획 기업 지원)
 - ※ 상기일정 및 지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수행기간 상이

지원분야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지원 및 제품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4개분야)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규모	
		수혜 기업	지원 금액(천원)
제품 브랜드 홍보지원	•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국·영문 카탈로그 제작 • 홈페이지, 로고, 디자인 등 • 기존 홈페이지 유지, 보수지원 • 제품광고비(인론매체 및 현수막, 신문광고, 팝업광고 등)	6	30,200
시제품 제작지원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 유망품목의 시제품관련 금형설계, 제작, 가공 등 개발 비용과 공정개선 향상지원 • 제품 및 생산성 물동제작, 시제품 제작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 제작 관련 비용지원	10	250,000
제품인증 및 특허지원	• 국내, 외 제품인증 및 특허지원에 필요한 내용	5	40,000
고용촉진 및 유지지원	•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임대 (체력환경을 위한 기구, 정수기, 커피머신 등) • 건강검진 및 복지시설 사용료 (리조트 사용 등) ※ 복지지원의 경우 사업공고 이전 기준 1년 이상 고용유지를 인연 적용 (최대 10명)	9	27,000
공통조건	지원대상 (공통부문) 전라남도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업) -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인기업 - 22년 사업공고 시점 기준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 예정 (1기업 1분야 1인이상 협약서)		

문의처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1005호 / TEL. 061-331-9325
담당자: 황 우 정 wnsy97@gei.re.kr